

후원자 · 예술인 있는 후원 문화 가능성 열다

전주문화재단,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 참여 3개 예술단체 2600여만원 모금

전주문화재단은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예술단체 모두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예술후원 매개기관으로 인증받은 전주문화재단은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 사업 운영으로 257명의 예술 후원자로부터 2,600여만 원을 모금했다. 또 이팝플러스가 후원자와 예술인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첫 선을 보인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3개 공연예술단체를 선정, 후원자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모금 코칭과 더불어 단체와 작품의 홍보를 위한 제안사항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 커피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영화 하모니를 소재로 창작한 뮤지컬 '하모니'를 제작하며 138명의 후원자로부터 1,300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모금액의 273%를 달성했다. 한옥마을 대시습청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 모던국악 프로젝트 차오름은 88명의 후원자로부터 600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모금액의 204%를 달성했다. 소리문화창작소 신은 3일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 작품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오페라 '백작의 유혹'을 위해 31명의 후원자로부터 600여 만원을 모금하며 목표 모금액의 124%를 달성했다.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 사업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2,600만 원은 당초 3개 공연예술의 목표 모금액 1,300만 원에 200% 이상 초과 달성하며 지역 예술단체의 권업 성공과 더불어, 예술후원 문화와 매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줬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3개 참여단체의 적극적인 모금활동과 더불어,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 지원에사에 맞춰 작품을 만들던 수동적인 창작환경에서 벗어나 이팝플러스의 예술후원과 매개를 통해 예술인과 단체의 능동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는 데 전주문화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 농촌 비닐하우스와 비어 있는 농협 창고를 이용한 이색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비닐 하우스 활용 이색 미술 전시회

남원시 보절면, 12일까지 빈 건물 등 이용 다양한 전시 진행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 농촌 비닐하우스와 비어 있는 농협 창고를 이용한 이색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예술과 농촌, 사람이 만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참깨된 마을의 원동력을 끌어낼 이번 전시회는 농작물 생산기능의 비닐하우스와 빈 건물을 활용, 미술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은천마을과 면 소재지 일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작가의 창작 숲 (회장 김해근)과 보절아트페스티벌위원회(회장 소인섭)가 주최·주관한다. 이번 전시회는 '사라질 위기 속에 농촌, 예술과 지역 콘텐츠의 융합으로 꽃피우자' 지역 콘텐츠는 씨앗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보절아트페스티벌 제2회 하우스미술관은 농촌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예술과 융합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지역재생 프로젝트다. 은천마을 비닐하우스 3동에서는 예술가의 54명의 미술작품 전시와 초·중·고등학생 그림 공모전을 통한 224명의 그림글 전시, 설치미술, 체험미술교실 등이 운영되며, 면 소재지의 빈 농협 창고와 점포에서는 농부를 테마로 한 마을박물관, 지역농산물 장터 운영, 동화일러스트 작품전시, 서각회원전 등 농촌지역을 예술로 재생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발굴·기획한 콘텐츠들이 펼쳐지며 자세한 사항은 총감독에 문의(010-3686-3262)하면 된다. 특히, 보절면의 정체성을 색으로 표현하고 주민들의 다채로운 메시지를 담은 설치미술, 허수아비 조형물, 마을박물관 등은 주민과 예술가가 같이 참여하여 농촌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주화가 하정열 화백, 정읍시에 작품 기증

'우주의 꿈과 희망 2020-8' 작품

'우주화가' 하정열 화백 작품이 정읍시청(본관 5층 대회의실 로비)에 소장·전시 된다. 정읍시는 하정열 화백이 지난 1일 정읍시에 작품 '우주의 꿈과 희망 2020-8(200x150cm)'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 한반도 지도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과 우주 만물을 융합해 대한민국의 변명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한지에 먹과 유채로 그린 그림이다. 정읍출신으로 예비역 육군 소장인 하 화백은 우주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우주를 주제로 동서양의 사상과 물질을 융합시킨 독창적인 우주작품을 선보이며 '우주화가'의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우주를 주제로 왕성한 전시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종합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 뉴욕 아트페어 대상, 대한민국 파워리더 서양학부문 대상, 중국 회화영웅상, 일본 미술평론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수석부이사장, 대한미술협회·G-art·아트코리아방송고



우주화가 하정열 화백이 지난 1일 정읍시에 작품 '우주의 꿈과 희망 2020-8(200x150cm)'을 기증하고 이학수 정읍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각종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무궁한 변명과 발전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한 응원 메시지

를 위해 작품을 기증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 으뜸정읍'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늘의 완산, '사진책, 나의마을완산' 발간회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인수 사업 참여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인수' 사업에 참여하는 오늘의 완산팀이 4일 오후 2시 동네정자(전주시 완산 5길 45)에서 '사진책, 나의마을완산' 발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청년 문화 자존 확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청년 소모임들이 지역과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문화기획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재단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개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의 완산' 팀 구성원은 7년 전 전주시 완산동 주민으로, 사회적 이슈인 마을소멸 문제를 조금이나 해결하고자, 청년 작가의 시선으로 완산동의 50년 이상 거주한 5인의 생활사를 구술과 사진으로 기록한 사진책을 발간했다.

이 책 발간에 참여한 청년작가로는 김승이, 오태중, 박선희, 김창하 등이 있고, 마을주민은 채현옥, 배화순, 서호만, 장병재, 기은옥 씨가 참여했다. 오늘의 완산팀은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나의 마을은 한 개의 집이 여럿 모여 이뤄진 마을이고 그 속에 내가 만든 타인의 시간을 들여보는 이야기 사진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나간 세월 속에 만들어진 마을의 모습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청년작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기록집으로 더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동완산동의 매력에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진안중평농악 공개시연회 '영산오른 율동림' 개최

전라좌도진안중평농악보존회(회장 이승철)는 오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마이산남부 금당사 잔디광장에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진안중평농악 공개시연회 '영산오른 율동림'을 진행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천혜의 영산 마이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해 동안의 노력을 위로하고, 흥겨운 웃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평곳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곳으로 높고 낮은 산의 조화처럼 무박하면서 깊으며, 가락수가 맑고 정다우면서 빠르다. 모든 체가 상모를 쓰며, 힘 있는 가락과 상모놀음의 조화로 박진감이 넘친다. 풍년질것으로 문을 나서 갖은 열두마치로 마당을 열고 품앗이곳으로 흥을 울려서 영산곳에서 주고받는 가락으로 절정에 이르러 소책사의 풍년소리를 더해 평화와 풍요를 바라면서 신명으로 이끈다. 진안중평농악보존회는 1992년 진안 성수면 중평마을에서 보존회를 결성하여 현재 진안전통문화전승관에서 중평곳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진안=우태연 기자

산악사진가 이윤승 작가 사진전 무주서 개최

무주군은 산악사진가 이윤승 작가의 '산' 사진전이 오는 11월 19일까지 안성면에 위치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전시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덕유산 상고대' 등 덕유산국립공원의 사계를 담은 작품 20여 점이 선보이는데 유화 캔버스에 인쇄해 기존 사진과는 다른 특별함, 또 덕유산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이윤승 작가는 "사진은 내만의 시간 속에서 피사체와 대화하고 또 같이 호흡하면서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라면서 "20여 년 전 무주로 귀촌한 이유로 덕유산이 좋아서, 덕유산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담기 시작한 덕유산은 사계절 어느 하나 똑같은 모습인 적이 없었다"며 "여러분도 변화무쌍한 덕유산의 사계절을 감상하시면서 가을로 곱게 물든 칠연연계곡을 따라 힐링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라고 덧붙였다. 사진화를 전공한 이윤승 작가는 산에 매



로돼 카메라와 함께 30여 년간 백두대간을 누비고 있는 산악사진가로 지난 2009년부터 덕유산을 비롯해 지리산과 설악산, 월악산, 주왕산, 속리산 등에서 30여 차례 산악 그룹전을 개최한 바 있다.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7 무주 WTF 세계계태권도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시회 등 각종 국제대회 초청 산악 사진 그룹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등 산악 사진가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산악사진가협회 5~6대 이사장과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무주사진가협회 회장이자 무주군관광협의회회장, 무주문화원 수석부원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이효재 전통문화 스타일리스트, 전북지식살롱 15회차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8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5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5회차에서는 한복과 보자기 아트 등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고품질 K-컬처'로 해외에 알리고 있는 이효재 전통문화 스타일리스트가 'K-스타일에 효재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효재 선생은 한복 디자이너, 친환경 보자기 아티스트,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한국의 마스슈투터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곤 한다. 그만큼 우리의 전통의상, 음식, 생활방식, 그 무엇인든 등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전통문화 전문가이다. 그는 한복 장인이었던 어머니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한복 디자이너로 먼저 이름을 알렸으며, 자연주의 살림 비법을 담은 '효재처럼'의 20여권의 책을 펴낸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폭스바겐을 보자기로 싸는 퍼포먼스로



한국의 색과 아름다움을 알리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세계적인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사례,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시킬 방법 등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류 관광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https://naver.me/F0tthGn>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추사박물관, '석정 이정직' 특별기획전 4일 개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추사박물관(과천시 소재)에서 11월 4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정 이정직' 특별기획전을 내년 1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稜, 1841~1910)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방위적 지식인 이정직은 흔히 '조선의 동가창(董其昌)'으로 불리며 중국의 명필뿐만 아니라 석봉 한호, 원교 이광사, 지하 신유, 추사 김정희 등 조선 명필들의 글씨를 끊임없이 입수하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 나갔다. 전시는 총3부로 구성되며, 제1부 '석정은 누구인가'에서는 석정 이정직의 문집과 족보, 붓과 벼루, 인장, 나침반 등을 선보인다. 제2부 '석정의 글씨와 그림, 글씨평'에서는 추사체를 입수한 작품과 중국의 소동파와 동가창의 글씨를 입묘한 작품, 탁본 작품 등 글씨 작품과 더불어, '화조도 8폭 병풍'과 '화해사군자 10폭 병풍', '매화와 국화', '목란도' 등 다양한 회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글씨평은 자하 신유, 원교 이광사, 창암 이삼만 등의



서첩과 병풍 작품에 글씨를 평가하는 글을 살펴볼 수 있다. 제3부 '석정의 제자'에서는 서화가 벼학 조주승(1854~1903), 표원 박규환(1868~1916), 유재 송기면(1882~1956) 등 석정 이정직을 계승한 제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조주승의 '벽해대지첩'·'천광운영(天光雲影)' 대자, 박규환의 '송정석노(松淸石老)' 대자, 송기면의 '송유재필법' 등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전은 석정 이정직이 추사 글씨의 연원과 특징을 밝힌 '석정진묵', 큰 글씨 '소요정' 입묘, '완당재현' 등 추사 관련 유물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추사와 석정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